

대구시의원 7명 '우수의정 대상' 수상

시·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
1년간 주민 삶의 질 향상 노력
지역 특성 맞는 지방자치 성과



대구시의원 7명이 지난 1년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'우수의정 대상'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.

대구시의회 김지만, 김재우, 홍인표, 이태손, 김성태, 황순자, 송영헌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은 전국시·도의회의장협의회가

주최한 '제7회 우수의정대상' 수상자로 선정돼 25일 서울 용산구의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.

'우수의정 대상'은 전국시·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

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선발,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. 최연청기자